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hat measures the faith of Christian senior adults. To develop the scale, sub-factors were determined and 53 preliminary corresponding questions were first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then 47 questions were selected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s from 8 experts.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of 20 senior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797 senior adults attending churches nationwide except on Jeju Island. Excluding the data that indicated insincere responses, 75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using JAMOVI 2.3, SPSS 22 and AMOS 22. In this process, 322 copi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434 copie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nal factors and questions extracted through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were as follows: 6 questions regarding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6 questions on ‘Trust in God, the Savior’, 5 questions on ‘Service to Others’, 3 questions on ‘Pursuit of a Holy Life’, and 5 questions on ‘Hope for Heaven’. This scale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for measuring the Christian faith of senior adults and a catalyst for further research on Christian senior adults.

Key Words: senior adult, Christian faith,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6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71304).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I. 서론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회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김성호, 2019 ; 문준호 외, 2021 ; 서울경제, 2023.1.8. ; 한겨레, 2022.9.29. ; 한국일보, 2022.9.24.). 노인의 심리적인 고독(이정관, 2014),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김성호, 2019), 낮은 삶의 질(문준호 외, 2021), 경제적인 어려움(서울경제, 2023.1.8. ; 한겨레, 2022.9.29.),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부담(한국일보, 2022.9.24.) 등이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노인기에 경험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Nouwen과 Gaffney(2014)는 노인의 부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리, 적막감, 자아상실로 보고 이를 사회로부터의 거절당함, 친구로부터의 거절당함, 내적 자아에게 거절당함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쇠퇴라는 노화의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의 활동 나이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문수경, 2020). 이는 안티에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노화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의 개념(김성호, 2019)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 외에 노인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 상태(문준호 외, 2021 ; 조영주·김신열, 2016 ; Humboldt et al., 2014), 건강(김지순 외, 2016 ; Humboldt et al., 2014) 문화생활, 자원봉사, 근로여부, 친목모임(문준호 외, 202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태명원, 2021) 등이다. 특별히 Humboldt, Leal, 그리고 Pimenta(2014)는 노화 적응(adjustment to aging: AtA)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영성, 건강과 자율성, 직업, 사회적 참여,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들었다. 김지순 외(2016)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인지 기능,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성 또는 신앙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기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KCI(Korea Citation Index)와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기독교’와 ‘노인’ 그리고 ‘신앙’과 ‘노인’을 검색어로 넣고 2018-2022년에 출간된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는 문헌연구 15편(강병덕 외, 2022 ; 구금섭, 2018 ; 김도일, 2019 ; 김성호, 2019 ; 김수영, 2021 ; 김정희·박은혜, 2021 ; 문수경, 2018 ; 문수경, 2020 ; 박미경, 2022 ; 박은혜, 2021 ; 배광수, 2019 ; 서주일·황병준, 2021 ; 윤득형, 2020 ; 이관영, 2018 ; 장신근, 2018), 양적(조사)연구 6편(강동훈, 2020 ; 김예자 외, 2020 ; 김정은·정여주, 2019 ; 문태승·류정희, 2020 ; 박선애, 2018 ; 황환, 2022), 질적연구 3편(김성원, 2022 ; 배광수, 2019 ; 유은희·김성원, 2022), 프로그램 개발 1편(이수인, 2022)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

사이 문헌연구의 수가 급증하면서 지배적인 경향이 있으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양적연구의 수가 그 뒤를 이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 연구의 중요 연구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인 신앙 연구의 중요도가 있는 조사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정향성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최창식과 한재희(2013)의 연구에서 김동기(1999)가 표준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동기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인 216명과 천주교인 295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종교정향성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 차원을 의미하며 20-50대를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노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종교령자 기독교인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에 대해 연구한 현외성(2011)은 이경열 외(2003)가 개발한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를 연구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 후 사용하였다. 원 측정도구는 대학생 466명과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종교령자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점과 측정도구 수정 시 필요한 내용타당도 검사와 통계적 분석이 생략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측정도구에서 다루는 보편적 영성(우주=하느님, 부처님, 참나, 존재 등)과 연구 주제인 기독교 영성과는 방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성을 매개 및 조절변인으로 본 신동민(2012)의 연구,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계를 살핀 정순화와 임정화(2013)의 연구, 영성을 매개변인으로 본 조영주와 김신열(2016)의 연구, 영성을 조절변인으로 본 박산애(2018)의 연구, 농촌지역 독거 여자노인의 영성을 파악했던 김예자 외(2020)의 연구 등에서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 측정도구 개발 시 연구 대상은 Christian college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장효과(ceiling effects)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전형적인 연구 대상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는 경향이 나타났었다(Bufford et al., 1991). 김정은과 정여주(2019)의 연구에서 장애인 노인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Walker와 Hill-Polerecky(1996)가 개발한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 척도의 6개 하위영역 중 김정은(2014)의 논문에서 사용한 영적 성장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Walker와 Hill-Polerecky 연구의 대상은 18세에서 92세 사이의 성인 712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죽음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윤현숙 외(2015)의 연구에서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Gorsuch와 McPerson(1989)이 수정하여 제시한 내재적·외현적 측정(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중 내재적 하위요인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자들은 연구 대상을 Southern California에 위치한 secular and religious colleges에 재학 중인 대학생 771명으로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예는 '사람이 착하면 됐지 무슨 중

교를 믿느냐는 중요치 않다(It doesn't much matter what I believe so long as I am good.)', '나는 일상생활에서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Although I am religions, I don't let it affect my daily life.)', '내 인생에서 종교가 전부는 아니다(Although I believe in my religion, many other things are more important in life)'로 번역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도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의 영향력을 연구한 강성봉과 조성숙(2013)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절차 중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생략함으로 구성타당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등의 타당도 검증을 포괄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한계가 나타났다.

외국에서 개발된 노인 영성 측정도구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A Spiritual Screening Tool for Older Adults을 개발한 Stranahan(2008)의 연구는 개신교인 41명과 카톨릭 신자 8명을 포함하여 4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망(hope), 초월(transcend), 의미(meaning), 종교(religion)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연구자 자신이 추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49명이라는 소수의 연구 대상으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Cummings 외(2015)는 불안 또는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The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SCS-RFQ)를 개발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이 측정도구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나의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My religious faith is extremely important to me); 나의 신앙은 삶에 의미, 목적을 제공한다(I look to my faith as providing meaning and purpose in my life); 나는 신앙이나 교회에서 적극적이다(I consider myself active in my faith or church); 나의 신앙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My faith is an important part of who I am as a person). 두려움이나 우울증을 앓았던 55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과 신앙생활 정도와 신앙 중요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자 한계로 보인다.

이상에서 노인의 신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는데, 영성과 신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술된 측정도구 소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성은 범신론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SAS)을 개발한 Howden은 영성을 “상호 연관성, 삶의 목적과 의미, 내면 또는 내적 자원, 초월을 통합함으로써 드러나는 개인의 통합되거나 단일화된 영역”(1992: 15)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성심리학을 저술한 Bucher는 양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성의 유형을 유신론적 영성,

관계로서의 영성, 신비적 경험으로서의 영성, 연합으로서의 영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성을 유신론적 영성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013: 105-107). 이와 같은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Howard는 기독교 영성을 “역동성이 보장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2008: 17)라고 정의하였다. Gerrish(1998: 53)는 영성을 “기도나 훈련이나 명상이나 인간의 종교적 행동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 즉 전인격적 실천”으로 정의하였다(김영한, 2008: 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노인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과거의 회고, 현재의 삶,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듯이, 보편적 영성과는 구분하여 기독교 영성과 유사 의미로 또는 대체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 노인 연구의 선행연구자들(박은혜, 2021 ; Choi, 2015 ; Edlund, 2014 ; MacKinlay, 2001)은 양적연구 방법의 확장 또는 신앙 측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은혜는 양적연구를 통해 종교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Choi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MacKinlay는 노인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고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것은 영적 어려움을 다루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30).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기의 특성,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 선행연구자들이 제기하였던 양적연구 및 측정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79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을 수거한 지역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322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434부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14명, 여자가

208명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60명, 여자가 27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개인적 배경은 Table 1에 소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N= 322, 43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Male	114	35.4	Gender	Male	160	36.9
	Female	208	64.5		Female	274	63.1
Age	65-70	153	47.5	Age	65-70	200	46.1
	71-75	75	23.3		71-75	116	26.7
	76-80	52	16.1		76-80	63	14.5
	81-85	31	9.6		81-85	37	8.5
	86 or more	11	3.4		86 or more	18	4.1
Residence	Seoul	81	25.2	Residence	Seoul	122	28.1
	Gyeonggi-do	108	33.5		Gyeonggi-do	166	38.2
	Jeolla-do	87	27.0		Jeolla-do	83	19.1
	Gyeongsang-do	33	10.2		Gyeongsang-do	22	5.1
	Gangwon-do	9	2.8		Gangwon-do	28	6.5
	Chungcheong-do	4	1.2		Chungcheong-do	13	3.0
Church duty	None	13	4.0	Church duty	None	17	3.9
	Deacon	85	26.4		Deacon	103	23.7
	Senior deaconess	159	49.4		Senior deaconess	205	47.2
	Elder	44	13.7		Elder	85	19.6
	Pastor	21	6.5		Pastor	24	5.5

2. 연구 절차

노인을 위한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구성요인 추출과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신앙 구성요인 추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노인 신앙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측정도구 관련 자료(강성봉·조성숙, 2013 ; 고일선 외, 2020 ; 김성원, 2022 ; 임창복 외, 2008: 46-105 ; 설은주, 2005: 169-171, 203-204 ; Bergen, 2003 ; Cera, 2020 ; Paloutzion & Ellison, 1982)를 고찰하였다. Bergen(2003)은 노인의 영적 요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타인과의 바른 관계, 자신의 죽음 세 가지로 보았다. Cera(2020)에 의하면, 영적 영역에 대한 고찰은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연계 의미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Bergen과 Cera의 견해와 더불어 노년기 영성은 자기 자신, 타인,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은주(2005: 309)의 견해를 종합하여 구성요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2)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3개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과의 관계 18문항으로 총 53문항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인 자신이 노인기에 해당하는 신학, 기독교교육, 교육학, 기독교 노인복지, 정치철학 박사 5인, 기독교교육 박사 2인, 그리고 간호학·신학·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한 1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의 평가를 기초로 점수가 높은 44문항을 추출하였으며,¹ 이중 점수는 높으나 표현이 어색하다고 평가된 5문항을 수정하였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나는 교회가 좋고 자랑스럽다’를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행을 멀리한다’를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로,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신앙에 몰두한다’를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로 수정하였다.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나는 찬양을 부르고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1)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다; 나는 가족, 교회, 사회에 축복의 통로이다; 나의 삶은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기준을 따른다; 나의 인생을 돌아켜볼 때 만족함이 있다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한다’를 통합하여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로 수정함.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는 추가된 문항이다.

(3)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추출 및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평정 시 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하나님·타인·자신과의 관계 3가지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돌아가면서 배열한 방식이 평정에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의 표현 중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참아 주려고 노력한다’를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1점-아니다, 2점-아닌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 평정하였다. 회수된 797부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322부,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434부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2.3, SPSS 25.0와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분석되었다. 먼저 하위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자료로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축요인추출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도 검증 후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 계수를 활용하여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구성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인을 구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과의 관계 18문항을 포함하는 53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전문가 8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44문항을 추출하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 총 25문항으로 완성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93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검정치가 5228.66($df=300,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Jamovi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자료의 하위요인은 5개가 적절한 것을 확인 후 추출 방법은 주축요인추출, 회전 방법은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40 미만과 교차부하 문항을 삭제한 후² 전체 변량 60.79%를 설명하는 5요인 25문항을 선정하였다.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2.00%의 설명력을 갖는 1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로 명명하였으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8.51%의 설명력을 갖는 2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명명하였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89%를 설명하는 3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명명하였고, 3개 문항으

2)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7. 나는 예배시간이 기다려진다; 8.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9. 나는 즐거이 헌금한다; 10.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11. 나는 찬양을 듣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14.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17.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나의 삶에 힘이 된다; 18.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19.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20. 나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다; 21. 나는 자손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 26. 나는 은사, 자녀, 재물 등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 27.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 28.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2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시기하지 않는다; 30.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1. 나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를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33. 나는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본다; 34. 나는 죄악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한다; 42.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43. 나는 신앙의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로 구성되어 2.93%를 설명하는 4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2.46%의 설명력을 갖는 5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Factor loadings

Factor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4	5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36.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70	.05	.04	-.08	-.02	.53
	37.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63	-.24	-.01	.08	.10	.63
	35.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54	-.12	.00	-.11	.07	.49
	39.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47	-.10	.02	-.10	.24	.58
	38.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45	-.13	.22	.03	.10	.49
	41.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44	.15	.14	-.23	.15	.50
Trust in God, the Savior	5.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08	-.83	.05	.05	.13	.73
	4.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07	-.81	-.07	-.04	-.05	.66
	3.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76	-.03	.07	.13	.72
	6.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06	-.73	.06	-.22	-.00	.68
	2.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21	-.66	.05	-.06	-.09	.60
	1.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04	-.65	.05	-.04	.13	.54
Service to Others	24.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06	.04	.87	.11	.05	.65
	23.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02	.04	.72	-.09	.01	.57
	22. I treat others generously.	.05	-.16	.62	-.08	-.17	.48
	25.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03	.01	.51	-.20	.09	.46
	32.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25	.03	.51	.05	.12	.48

Pursuit of Holy Life	13.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1	-.06	.06	-.73	.02	.73
	15. I try to avoid sin.	.04	-.07	.00	-.69	.14	.67
	16. I live to give glory to God.	.01	-.22	.17	-.42	.17	.57
Hope for Heaven	45.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06	-.03	.01	-.13	.81	.75
	46. I entrust my future to God.	.09	-.00	-.03	-.07	.80	.77
	47.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08	-.23	.03	.07	.66	.68
	4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07	-.08	.07	-.06	.64	.63
	40.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34	.02	.108	-.08	.44	.61
Eigenvalue		10.88	2.51	1.60	1.11	0.97	
% of Variance		42.00	8.51	4.89	2.93	2.46	
Total Variance		42.00	50.51	55.40	58.33	60.79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모형 평가 방법으로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145-147). χ^2 값은 902.63($df=265$, $p<.001$)로 나타났다는데, χ^2 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합지수인 RMR, G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는 RMR=.02, GFI=.86, TLI=.88, CFI=.89, RMSEA=.08로 일부 계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값이 높게 나타난 e1<->e6(32.42), e14<->e15(16.52), e18<->e19(25.58), e21<->e24(31.77)에 해당하는 문항의 의미가 유사함을 확인한 후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수정 후의 적합도 지수는 $\chi^2=778.96$ ($df=261$, $p<.001$), RMR=.02, GFI=.88, TLI=.90, CFI=.91, RMSEA=.07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Table 3. Model Fit

Model	χ^2	df	RMR	GFI	TLI	CFI	RMSEA
Original	902.63	265	.02	.86	.88	.89	.08
Modified	778.96	261	.02	.88	.90	.91	.07
Cut-off			<.05		>.90		.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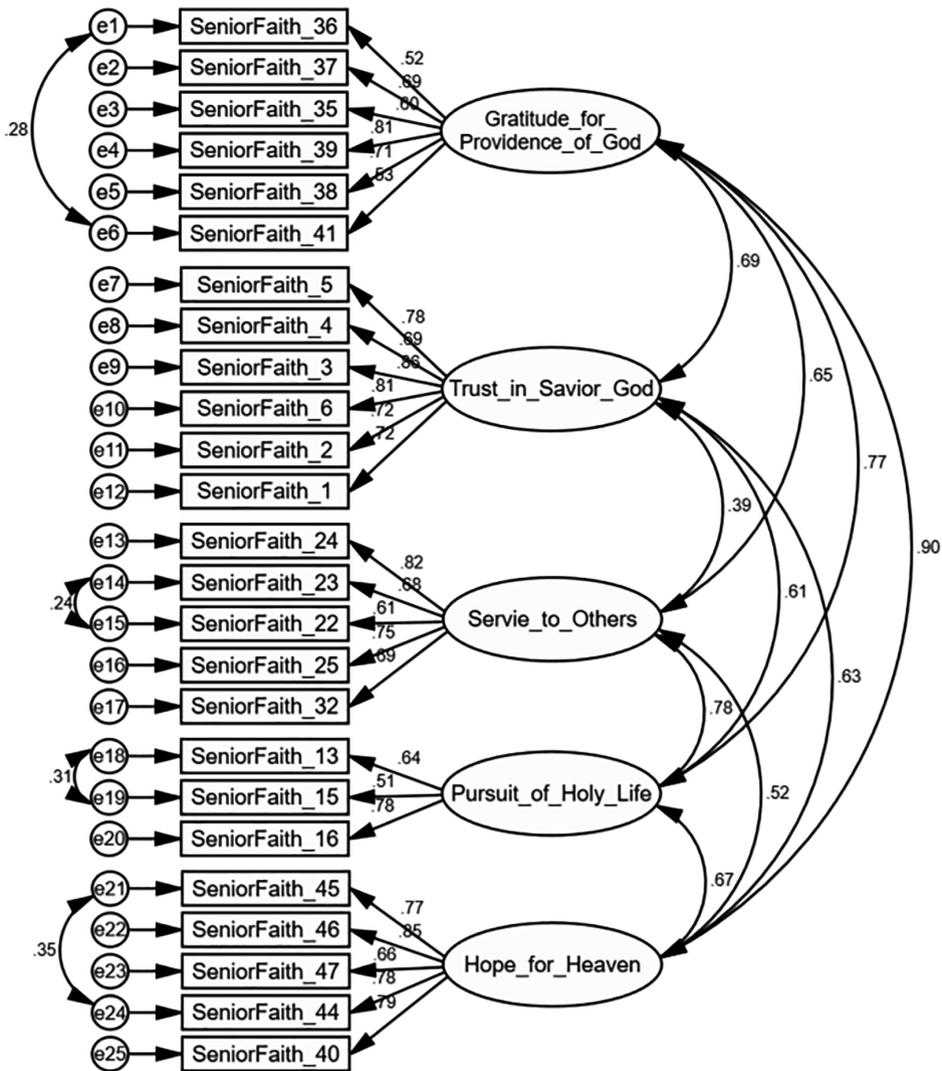


Figure 1. The path diagram of model

(3)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음을 의미한다(우종필, 2022: 160). Table 4에 제시된 집중타당성 검증의 모든 지표는 표준화 계수 .50 이상, 평균분산추출 지수 .50 이상, 개념신뢰도 지수 .70 이상의 기준치(우종필, 2022: 1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vergent validity

Factor	Item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i>B</i>	β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SeniorFaith_41	1.00	.53			.80	.96
	SeniorFaith_38	1.83	.72	.17	10.51***		
	SeniorFaith_39	1.67	.81	.15	11.22***		
	SeniorFaith_35	1.21	.60	.13	9.44***		
	SeniorFaith_37	0.88	.69	.09	10.29***		
	SeniorFaith_36	1.13	.52	.11	10.20***		
Trust in God, the Savior	SeniorFaith_1	1.00	.72			.92	.99
	SeniorFaith_2	1.05	.72	.07	14.47***		
	SeniorFaith_6	1.87	.81	.07	16.28***		
	SeniorFaith_3	0.98	.86	.06	17.38***		
	SeniorFaith_4	0.82	.69	.06	13.92***		
	SeniorFaith_5	1.04	.78	.07	15.80***		
Service to Others	SeniorFaith_32	1.00	.69			.90	.98
	SeniorFaith_25	0.98	.75	.07	13.62***		
	SeniorFaith_22	0.70	.61	.06	11.34***		
	SeniorFaith_23	0.89	.68	.07	12.52***		
	SeniorFaith_24	1.22	.82	.08	14.55***		
Pursuit of Holy Life	SeniorFaith_16	1.00	.78			.92	.97
	SeniorFaith_15	0.54	.51	.06	9.49***		
	SeniorFaith_13	0.68	.64	.06	12.18***		
Hope for Heaven	SeniorFaith_40	1.00	.79			.94	.99
	SeniorFaith_44	0.95	.78	.06	17.27***		
	SeniorFaith_47	0.64	.66	.05	14.17***		
	SeniorFaith_46	0.93	.85	.05	19.17***		
	SeniorFaith_45	0.85	.77	.05	17.02***		

*** $p < .001$

(4)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변수 간 상관이 낮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종필, 2022: 16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요인 1)’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인 2)’($r=.58,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타인을 향한 섬김(요인 3)’($r=.57,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삶의 추구(요인 4)’($r=.58,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요인 5)’($r=.73,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타인을 향한 섬김’($r=.3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거룩한 삶의 추구’($r=.4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소망’($r=.58, p<.01$), ‘타인을 향한 섬김’과 ‘거룩한 삶의 추구’($r=.61, p<.01$), ‘타인을 향한 섬김’과 ‘천국에 대한 소망’($r=.44, p<.01$), ‘거룩한 삶의 추구’와 ‘천국에 대한 소망’($r=.49, p<.01$)으로 나타나 전체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경우 입증될 수 있는데(우종필, 2022: 169),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 지수는 상관관계 제곱보다 높으므로 판별타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AVE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80
Trust in God, the Savior	.58**				.92
Service to Others	.57**	.35**			.90
Pursuit of Holy Life	.58**	.45**	.61**		.92
Hope for Heaven	.73**	.58**	.44**	.49**	.94

** $p<.01$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개 요인 25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8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89, ‘타인을 향한 섬김’ .84, ‘거룩한 삶의 추구’ .72, ‘천국에 대한 소망’ .88, 그리고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Table 6. Reliability

	Items	Cronbach's α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2, 3, 4, 5, 6 *	.81
Trust in God, the Savior	7, 8, 9, 10, 11, 12	.89
Service to Others	13, 14, 15, 16, 17	.84
Pursuit of Holy Life	18, 19, 20	.72
Hope for Heaven	21, 22, 23, 24, 25	.88
Total		.92

* Final Item number

4. 최종 문항

이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5요인, 25문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최종 하위요인과 문항³⁾은 Table 6과 같다.

Table 7. Final factor and item

Factor	Item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2.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3.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4.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5.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6.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3) 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하위요인명과 문항을 한글로 소개하고자 한다: 요인 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1.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2.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다; 4.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5.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왔다; 6. 나는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요인 2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7. 나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8. 나는 나와 가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9.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10.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11.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12.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요인 3 타인을 향한 섬김- 13. 나는 시간, 은사, 건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14.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푼다; 15. 나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 16.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쓴다; 17. 나는 삶과 신앙의 지혜를 후대에 전하는 안 내자 역할을 한다; 요인 4 거룩한 삶의 추구- 18.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19.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20.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요인 5 천국에 대한 소망- 21.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22. 나는 노년의 삶(미래)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23.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24. 나는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 25.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Trust in God, the Savior	7.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8.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9.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11.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12.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Service to Others	13.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14.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15. I treat others generously.
	16.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Pursuit of Holy Life	17.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18.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9. I try to avoid sin.
Hope for Heaven	20. I live to give glory to God.
	21.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22. I entrust my future to God.
	23.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2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25.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하위요인과 이에 해당하는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맞추어 측정도구의 구성과 타당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하위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였고, 여기에는 ‘나는 인생

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와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요인은 가장 많은 문항 수를 포함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변량의 3분의 2 이상을 설명하면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Lyon(2004)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나이 들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에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날도 함께 하신다'라는 신념을 포함한다(Choi,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설은주(2005: 79)가 노년기의 자아통합적 성격을 자기 자신과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라고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 관점은 본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었다(김성원, 2022). 연구참여자 중에 삶 전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90세를 바라보는 목사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고... 핍박, 배척, 참고 이기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6.25때 남한 와서 모든 정변 다 겪었고 부모가 있지만 고아처럼 컸는데 그때 그때 귀인들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라고 고백하였다. 연구 대상이 19세에서 78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연령이 51.31세로 본 연구와 상이하기는 하나,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종교적 지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결과(홍구화, 2022)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번째 하위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와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등의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성숙한 신앙의 특징으로 감사하는 삶을 언급하였는데,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김성원, 2022). 또한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 성취될 구원에 대해 갈망하고 있다는 결과(배광수, 2019)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구원, 소망, 개인적 역사와 종교적 시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비움에 대한 영적 훈련, 순례자로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 이정호(2001)의 제안도 본 연구의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아울러 신앙발달 이론으로 저명한 Fowler도 "신앙은 믿음이 형성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1994: 502)라고 정의함으로써 신앙의 대상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강조한 바 있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세 번째 하위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이었고, 이 요인에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풀다'와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Bergen(2003)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의 영적 필요 중 하나를 타인과의 바른 관계 형성으로 보았다. 온전한 영성과 웰빙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 수용, 용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Stevens(2018)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원리 중 하나를 서로를 점검해 주는 공

동체(accountability group)로 보면서, 사랑이라는 미덕은 사람, 장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보는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Bergen과 Stevens의 견해는 노인기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 대상 노인들이 종교적 자원봉사에 참여한 후에 자원봉사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이 좋아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결과(Choi, 2015)는 본 연구 결과에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네 번째 하위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였고,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와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구의 유형은 다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년기 연구참여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 결과(김성원, 2022)는 본 발견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기독교인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회개할 힘이 있으며 비기독교인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심적이고 무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노인에게는 영적 통합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과 평화롭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설은주(2005: 170)의 견해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마지막 하위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등의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독교 노인 연구에서 죽음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며, 다수의 학자들이 신앙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김성호, 2019 ; Bergen, 2003: 132 ; Pfaffman, 2014 ; Rababa et al., 2021).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삶의 전반적인 평화를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특별히 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더욱 평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Pfaffman, 2014). 따라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은 영성 성숙의 증거가 된다. 이는 죄인을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한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gen, 2003).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에 덧붙여, 종교적 대응과 영적 웰빙은 노인의 죽음 두려움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Rababa, et al., 2021) 그리고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배광수, 2019)는 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구성요인은 60.7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60% 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보이는 경우 추출된 요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노경섭, 2019: 15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인 RMR, GFI, TLI, CFI, RMSEA가 기준치를 상

회한 결과를 통해서도 본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도,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 지수를 확인하여 확인하여 집중타당도 그리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별 및 전체 신뢰도 값이 모두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의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의 5개 요인에 해당하는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노인 신앙의 구성요인으로 하나님(1요인, 2요인), 타인(3요인), 자신(4요인, 5요인)을 구분하여 문항을 제시했던 원 관점을 잘 반영하면서도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학적 미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반응인 믿음, 인간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살림의 성취를 향해 나아감을 믿는 소망, 돌봄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제시한 Stevens(2018)의 제안 역시 잘 반영한다. 본 연구는 800명에 가까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수행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의 절차와 통계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한국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한국인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사실도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가 부재하고 국외 노인 신앙 측정도구의 한계를 인지함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를 참조한 점, 특별히 본 연구자가 측정도구 개발의 사전 단계로 수행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 18명을 면담한 경험과 결과를 반영한 점,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연구 대상을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의 70% 이상이 교회 출석 및 설문 응답이 가능한 75세 이하인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여진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노인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에 활용되고 노인 사역의 현장에서 신앙에 관한 지표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인의 삶과 노인 사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동훈 (2020). 종교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212-221.
- [Kang, D. H. (2020). Effect of religion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212-221.]
- 강병덕·조성봉·정예은·손혜인 (2022).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2), 137-169.
- [Kang, B. D., Cho, S. B., Jeong, Y. E. & Son, H. I. (2022).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Faith & Scholarship*, 27(2), 137-169.]
- 강성봉·조성숙 (2013).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25-346.
- [Kang, S. B. & Cho, S. S. (2013).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aith attitudes on depression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25-346.]
- 고일선·최소영·김진숙 (2020). 영성측정도구개발 및 평가. **한국간호과학회**, 50(1), 132-136.
- [Ko, I. S., Choi, S. Y. & Kim, J. S.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new version of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1), 132-136.]
- 구금섭 (201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아통합과 영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영성과 보건의복지**, 5(1), 49-73.
- [Koo, K. S. (201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integration and spirituality fo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Spirituality, Health, and Welfare*, 5(1), 49-73.]
- 김도일 (2019). 노인과 함께 하는 평화교육: 갈등을 넘어 평화로. **선교와 신학**, 49, 177-204.
- [Kim, D. I. (2019). Peace education with old age people: Peace over conflict. *Mission and Theology*, 49, 177-204.]
- 김성원 (2022). 노인의 신앙 체험 및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2, 87-122.
- [Kim, S. W. (2022) A qualitative study of senior adult's experience and meaning of faith.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72, 87-122.]
- 김성호 (2019).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 “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 9-37.
- [Kim, S. H. (2019). The issue of christian elderly welfare in aged society: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on “anti-aging and well-aging”.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3, 9-37.]
- 김수영 (2021). 노년기 자아통합감 형성을 돕는 기독교 가족의 일상 의례 연구. **ACTS 신학저널**, 50, 476-

507.

- [Kim, S. Y. (2021). A study on the daily rituals of christian Korean families to develop the formation of ego-integrity in old age. *ACTS Theological Journal*, 50, 476-507.]
- 김영한 (2008). 칼빈의 영성: 영성신학자 칼빈. **영성포럼**, 11, 8-24.
- [Kim, Y. H. (2008). The spirituality of Calvin: The spiritual theologian Calvin. *Spiritual Forum*, 11, 8-24.]
- 김예자·윤경아·손의성 (2020). 농촌지역 독거 여자노인의 영성 및 종교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상실감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0(3), 89-105.
- [Kim, Y. J., Yoon, K. A. & Sohn, E. S.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religious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rural areas: On the focus of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ense of los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0(3), 89-105.]
- 김정은·정여주(2019). 장애노인의 자아 통제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0(6), 439-452.
- [Kim, J. E. & Jung, Y. J. (2019). Spirituality as a medi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mastery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439-452.]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J. H., Kim, M. K. & Hong, S. H. (2009). *Writing Research Paper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ommunication Boos.]
- 김지순·송라윤·김기웅·김정란 (2016). 인지기능,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정신의학**, 20(1), 25-38.
- [Kim, J. S., Song, R. Y., Kim, K. W. & Kim, J. L. (2016). Effect of cognitive functio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0(1), 25-38.]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 아카데미.
- [Noh, K. S. (2019). *The Proper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Seoul: Hanbit Academy.]

- 문수경 (2018).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무연사와 탈인습적 교육과정 연구. **대학과 선교**, 37, 307-343.
- [Moon, S. G. (2018). A study on the 'non-relationship' death of elders in aging era and the post-conventional Christianity curriculum. *University and Mission*, 37, 307-343.]
- 문수경 (2020).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기독교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개방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6, 37-75.
- [Moon, S. G. (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Focused on the role of university opening. *University and Mission*, 46, 37-75.]
- 문준호·송명근·이원석·당약함 (2021).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인 삶의 질의 결정요인. **공공정책연구**, 38(1), 233-254.
- [Moon, J. H., Song, M. K., Lee, W. S. & Tang, R. H. (2021). Determinants of senior citizen quality of life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aging.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38(1), 233-254.]
- 문태승·류정희 (2020). 노인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임파워먼트와 영성의 중다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6(2), 213-231.
- [Moon, T. S. & Lyu, J. H. (2020).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powerment and spirit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lders' learning flow and successful ag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6(2), 213-231.]
- 박미경 (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노년교육 연구. **신학과 실천**, 82, 667-693.
- [Park, M. K. (2022). A study on the aged's christian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the aged as human resources for super-aging society in Korea. *Theology and Praxis*, 82, 667-693.]
- 박선애 (2018). 노인의 건강수준과 경제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성의 조절효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 **신학과 사회**, 32(3), 141-192.
- [Park, S. A.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between the level of health and economy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The comparison of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Theology and Society*, 32(3), 141-192.]
- 박은혜 (2021).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기독교교육논총**, 67, 77-116.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77-116.]
- 박일귀 역 (2018). **나이들의 신학**. Stevens, P. R. (2016). *Age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서울: 도서출판 CUP.
- [Park, I. G. (2018). *Age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Seoul: CUP.]

- Trans. Stevens, P. R. (2016).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배광수 (2019).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현상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5(4), 295-306.
- [Bae, G. S. (2019).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christian elders living alo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295-306.]
- 서주일·황병준 (2021).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촌지역 노인목회 연구. **신학과 실천**, 73, 887-917.
- [Seo, J. I. & Hwang, B. J.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elderly pastoral ministry in rural area for the age of super-aging. *Theology and Praxis*, 73, 887-917.]
- 설은주 (2005).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Seol, E. J. (2005). *The Senior Ministry in the Age of Aging*. Seoul: JeYoung Communication.]
- 신동민 (2012). 노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57, 261-288.
- [Shin, D. M.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self-efficacy of aged people on ego integrit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261-288.]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개정판). 서울: 한나래.
- [Yu, J. P. (2022).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Revised Ed.). Seoul: Hannarae.]
- 유은희·김성원 (2022).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과 삶에 관한 질적연구: 신앙, 부르심, 노인사역에 관한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72, 117-146.
- [Yoo, E. H. & Kim, S. W.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ith and life of a christian senior with a doctoral degree: Suggestions for faith, calling, and senior ministr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117-146.]
- 윤득형 (2020).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로서 죽음준비교육. **신학과 실천**, 68, 501-526.
- [Yoon, D. H. (2020). Crises from experiences of the loss in the elderly and death education as the task of the practical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68, 501-526.]
- 윤현숙·임연옥·고윤순·범경아 (2015). 노인의 영성, 사회적 지지, 우울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229-254.
- [Yoon, H. S., Lim, Y. O., Koh, Y. S. & Beum, K. A.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spiritual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to death anxiety of the older adul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3, 229-254.]

- 이경열·김정희·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6.
- [Lee, K. Y., Kim, C. H. & Kim, D. W. (2003).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11-726.]
- 이관영 (2018).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기독교 효사상에 입각한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 교회부설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심으로. **기독교문화연구**, 23, 205-234.
- [Lee, K. Y. (2018). A study on the care of the elderly based on christian filial piet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Focusing on a church-affiliated long-term care institution. *Christian and Cultural Studies*, 23, 205-234.]
- 이수인 (2022). 연극 활동을 통한 기독교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학과 실천**, 79, 485-508.
- [Lee, S. I.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senior education programs through play activities. *Theology and Praxis*, 79, 485-508.]
- 이은경 역 (2013). **영성 심리학: 영성에 관한 간학문적 대화**. Bucher, A. A. (2007).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서울: 동연.
- [Lee, E. K. (2013).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Seoul: Dong-Yeon. Trans. Bucher, A. A. (2007).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Weinheim: Psychologie Verlagsunion.]
- 이정관 (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 실천**, 39, 389-411.
- [Lee, J. G. (2014). Caring for the Christian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Theology and Praxis*, 39, 389-411.]
- 임창복·이언구·최명희 (2008). **교회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 [Im, C. B., Lee, U. G. & Choi, M. H. (2008). *Church Education for Senior Adults*.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Institute.]
- 장신근 (2018). 통전적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의 모색: Fin-Telos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3), 327-355.
- [Jang, S. G. (2018). Seeking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for nurturing holistic fait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3), 327-355.]
- 정순화·임정하 (2013).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연구**, 20(4), 59-79.
- [Chung, S. H. & Lim, J. H. (2013). Exploring the links between spirituality and successful aging of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4), 59-79.]
- 조영주·김신열 (2016). 경제상태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간 신체건강과 영성의 다중매개효과. **신학과 사회**, 12, 155-188.
- [Cho, Y. J. & Kim, S. Y. (2016).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health and spirituality between 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Theology and Society*, 12,

155-188.]

- 최중훈 역 (2014). **나이 든다는 것**. Nouwen, H. J. M. & Gaffney, W. J. (1976). 서울: 포이에마.
- [Choi, J. H. (2014).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Seoul: Poiema. Trans. Nouwen, H. J. M. & Gaffney, W. J. (1976).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New York: Random House.]
- 최창식·한재희 (2013). 노인의 종교정향성과 삶의 태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 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213-251.
- [Cho, C. S. & Han, J. H. (2013). Path analysis for elderly orientation, life attitud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4(1), 213-251.]
- 태명원 (2021).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20-232.
- [Tae, M. W. (2021). The effect of the self-efficiency of older people on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spec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4), 220-232.]
- 현외성 (2011). 중고령자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 **노인복지연구**, 54, 35-60.
- [Hyun, O. S. (2011). A study on the spirituality, church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old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4, 35-60.]
- 홍구화 (202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27(4), 177-198.
- [Hong, G. 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ristian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Faith & Scholarship*, 27(4), 177-198.]
- 황환 (2022). 국내 개신교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인지정상군과 인지저하군 비교. **장신논단**, 54(1), 242-272.
- [Hwang, H. (2022).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rotestant elderly in Korea: A comparison of cognitively normal group and cognitively impaired grou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4(1), 242-272.]
- Bergen, M. S. (2003). A Christian education for the spiritual growth of senior adults. *Journal of Religious Gerontology*, 15(1-2), 127-141.
- Bufford, R. K., Paloutzian, R. F. & Eillison, C. W. (1991). Norms for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56-70.
- Cera, R. (2020). Education, spirituality, religion and transformative learning in aged adults: A qualitative study. *Rivista di Scienze dell'Educazione*, 58(2), 222-237.
- Choi, S.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volunteering and the faith of seniors.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89-104.
- Cummings, J. P., Carson, C. S., Shrestha, S., Kunik, M. E., Armento, M. E., Stanley, M. A. & Amspoker, A. B. (2014).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 Psychometric analysis in older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9(1), 1-12.
- Edlund, B. J. (2014). Revisiting spirituality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40(7), 4-5.
- Fowler, J. W. (1994). 신앙 발달 단계. In Gibbs, E. S. (Ed.). **한 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pp. 501-605). 독고 앤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Fowler, J. W. (1994). Stages of faith. In Gibbs, E. S. (Ed.). *A Reader in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and Basic Perspectives* (pp. 501-605). Seoul: Timothy Book.]
- Gorsuch, R. L. & McPherson,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3), 348-354.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Houston, TX.
- Humboldt, S. V., Leal, I. & Pimenta, F. (2014). Does spirituality really matter? : A study on the potential of spirituality for older adult's adjustment to aging.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6(2), 114-125.
- MacKinlay, E. (2001). *The Spiritual Dimension of Ageing*.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Peplau, L. A. & Perlman, D. (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faffman, S. B. (2014). *Conversations with Senior Adults about Spirituality, and Dying*.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Minneapolis, MN.
- Rababa, M., Hayajneh, A. A. & Bani-Iss, W. (2021). Association of death anxiety with spiritual well-being and religious coping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 50-63.
- Stranahan, S. (2008). A spiritual screening tool for older adul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7(4), 491-503.
- Walker, S. N. & Hill-Polerecky, D. M. (1996).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 서울경제 2023. 1. 8일자. “NYT, “韓 고령층 40%…은퇴 연령 넘겨도 노동 지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AUDZRQ> (검색일 2023.1.16.)
- [“NYT, “40% of the elderly in Korea… Continuing to work even after retirement””, *The Seoul*

Economic Daily (2023.1.8.).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AUDZRQ> (2023.1.16.)

한겨레 2022. 9. 29일자.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노인을 위한 한국, 어떻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 (검색일 2023.1.8.)

[“The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9 million... Korea for the elderly, How?”, *The Hankyoreh* (2022.9.29.).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 (2023.1.8.)]

한국일보 2022. 9. 24일자 14면. “‘부양 부담’ ‘불안한 노후’...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중장년층.”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4540001838> (검색일 2023.1.8.)

[“‘Burden of support’ ‘Anxious retirement’... middle-aged Korean in trouble”, *Hankook Il-Bo*(2022.9.24.). Retrieved fr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4540001838> (2023.1.8.)]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김성원(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를 소개하면,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하위요인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53개의 예비문항 개발하여 8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사를 거쳐 47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 79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756부를 분석하였으며 JAMOVI 2.3, SPSS 22과 AMOS 2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22부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434부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출된 요인 및 문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본 측정도구는 노인의 신앙 측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기독교 노인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타당화